

# 신·재생 에너지 연구동력 “집중”

## ETRI, IT분야 접목 융합형 에너지 연구 ... 태양광 연구 클러스터 설립

대전 대덕특구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새정부 출범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동력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화석연료 고갈과 국제적 환경규제 심화로 친환경 청정에너지 및 소재 개발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IT 분야와 접목한 융합형 에너지연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대덕특구 관련분야 연구원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양전지 개발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TRI 관계자는 “새정부가 신 성장동력으로 에너지를 지목하면서 축적된 IT 기술을 에너지 개발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현재 실무부서에서 정책 구상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은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연구 부문을 따로 모아 핵심 연구본부를 신설했다.

핵심연구본부에서는 연료전지, 합성석유, 풍력발전, 태양전지, 수소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차세대 에너지 연구의 핵심으로 보고 연구 인력과 예산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환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려는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원들의 시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은 2007년 10월 기존의 환경·에너지 연구본부를 환경기계연구본부와 에너지기계연구본부로 분리해 확대 개편하면서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생산설비 자립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강원도 대관령에 위치한 750kW급 풍력발전기 3기, 풍황측정기(MM) 등을 인수해 대관령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지를 설치하고 소형, 중대형 국산 풍력발전기 및 부품의 성능 평가와 실증 시험 등에 나선 상태이다.

기계연구원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풍력, 태양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높은 생산단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핵심적인 걸림돌”이라며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산업의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도 2007년 1월 32개 연구팀을 13개 센터체제로 재편하면서 에너지소재연구센터, 석유대체연구센터, 환경·에너지연구센터 등을 신설하고 차세대 에너지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에너지소재연구센터 문상진 센터장은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의 핵심소재와 에너지 절약 및 저장 소재를 비롯해서 수소, 핵융합 에너지 분야의 극한소재 등 첨단 화학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조직”이라며 “2008년부터 연구 직원을 충원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에너지 개발 분야에 대한 대덕특구 연구소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는 관련 연구원과 대학, 벤처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문클러스터인 태양광연구조합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연구원 등 연구소 3-4곳과 KAIST, 대덕특구 벤처기업 10여곳이 참여하는 연구조합에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등의 공동 기술개발 및 양산기술 확보, 생산을 목적으로 내주에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6>